

회 의 록

회의명	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	일 시	2016년 04월 22일 (금요일)
			11:50 ~ 13:00
		장 소	산학협력관 404호
참석인원	- 산학협력단장, 교무처장(손영준), 총무처장(이호선), 기획처장(정승렬), 국제교류처장(윤경우), 한화택 교수, 도영락 교수 - 간사 : 박영진 부장, 실무자 : 정해송 차장		
불참자	- 김도현 교수, 정도성 교수, 류춘렬 교수		

◎ 회의안건

1. 2015 외부연구비 수주실적
2. 2015 외부회계감사
3. 2015 결산 주요사항
4. 2015 재무제표

◎ 회의내용

- 산학협력단장

- 산학협력운영위원회 위원을 소개하고 산학협력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설명함.
- 2015회계연도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외 3개의 안건을 심의기로 함.

- 정해송 차장

- 2015회계연도 외부연구비 수주실적
- 2015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
- 2015 결산 주요사항
- 2015 재무제표

위 사항에 대해 발표함.

- 산학협력단장

- 간접비 수익의 증가율이 연구비 수익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간접비 징수율의 1% 포인트 하락 때문임. 비등록금 회계를 간접비 원가계산에 적용시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산단장 협의회에서 개선 요청은 하였지만 학교 내부적인 제도변경을 통한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.

- 정해송 차장

·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등록금과 비등록금 회계를 구분하도록 되어있음. 산학협력단 간접비 원가 계산 때문에 예산조정팀에서 비등록금 회계 예산을 등록금 회계 예산으로 옮기기에 어려움이 있음. 타 대학에서도 미래부에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이미 공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원가 계산 때 고려해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음.

- 산학협력단장

· 연구관리 체계평가에서 우리 대학은 B 등급을 받음. A 등급 시 간접비 징수율이 1% 포인트 상승 하지만 평가항목이 대형대학 위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 등급을 받기엔 어려움이 있음.

- 정승렬(기획처장) 교수

·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전출금에 포함 되어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.

- 정해송 차장

·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산학협력단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학교로 전출 하고 있음.

- 산학협력단장

·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법인세의 규모에 대하여 질의함.

- 정해송 차장

· 수익사업(산업체연구수익, 지식재산권수익, 설비자산 사용료수익, 기타산학협력수익, 산학협력연구수익(간접비), 이자수익)에서 발생한 당기 운영차액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됨.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영차액은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음.

- 정승렬(기획처장) 교수

· 학교회계 전출금이 2014년도에 약 10억, 2015년도에 약 29억임. 전출금 설정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대하여 질의함

- 산학협력단장

· 학교와 산학협력단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됨. 간접비의 재원이 연구 수주에 의한 것이므로 연구자를 위한 지원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하며 차선적으로 학교재정에도 기여할 것임.
· 산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연구비 수주액 500억을 달성하였음. 산학협력수익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경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함.

- 한화택 교수

· 공과대학 평가의 중점사항이 논문에서 산학협력 관련 연구 실적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.

- 결의사항

·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 안대로 (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) 통과함.

이 문서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관련 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"사본 PDF" 문서입니다.